

광주, 미래차 대전환... 568개 부품기업 전방위 지원

市·광주그린카진흥원, 전기차 시장 선점 시설 구축 등 역량 강화 국·시비·민자 889억원 투입...공동작업실 건축 설계용역 등 착수

광주시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친환경 전기자동차(EV)로 급변하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을 지역 내 부품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전환 기업 경영진단 지원, 부품개발 지원인프라 확대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부품업체 568개사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889억원(국비 556억·시비 185억·민자 148억)을 연차별 투입하고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수평적 전기차(EV)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사업 등

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미래차 대전환을 위한 시설 구축과 기업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4일부터 지역부품 기업이 미래차 목적기반차(PBV)의 차체·새시를 제작할 수 있는 '목적기반차량(PBV)시제품제작 공동작업실'을 구축하는 설계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고가의 레이저 절단장비와 용접장비를 설치해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달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2026년까지 5년간 125억원(국비 50억·시비 75억)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팩·모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장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배터리 팩·모듈 설계, 제품개발, 인증지원, 인력양성 등 종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신뢰성 강화를 통한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기차(EV) 국민경차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145억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 불량 감소 및 공정 효율화를 모색하는 '디지털기반 메타플랫폼 구축사업'과 영세한 중·소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공용화 부품자체 개발 지원 사업인 '미래차 전환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희종 광주시 기반산업과장은 "지역내 부품기업들이 내연기관차와 향후 미래차 부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靑 청년들 연대...청년 예술 페스티벌 개막

31일까지 문화전당 일원...소규모 문화 공적개발원조 등 모색

아시아 청년과 광주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시아 청년 예술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인 아시아 청년 예술 페스티벌을 24일부터 3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광주시의 정체성을 담보로 아시아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대'를 슬로건으로 예술캠프, 전시, 공연, 예술난장, 포럼 등 6개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4개국 청년들은 24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청년 예술 캠프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에 참가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광주의 문화명소를 탐방한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공동 창작작품 기획전시 '아시아의 어젠다, 아시아의 예술' 프로그램이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소규모 문화축제인 예술난장 '컬렉티브 아시아'도 예정돼 있다.

미디어아트와 사운드디자인의 융복합 공연으로 아시아 청년 예술인과 광주지역의 공연예술단체가 만나는 콜라베이션 공연 축제, 아시아 청년 문화 파티 '엔조이 뉴 아시아(Enjoy New Asia)'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29일 오후 6시부터 펼쳐진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미래를 논의하는 학술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청년 미래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는 1부는 멘토와 청년이 각 조를 구성해 '아시아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문화예술 활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각 조별 멘토가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 사례,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통합적으로 발표한다. 이 밖에도 12월에는 이번 페스티벌의 확대 행사로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아트센터에서 현지 청년 예술인력 역량강화, 양국 협업작품과 아카이브 사진전도 예정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세계김치축제 '북적' 휴일인 23일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장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중심 지정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김용욱 연구진은 “다양한 혁신과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 특례가 반영되도록 ‘개방형 규제 특례로의 전환’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계획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분야 선도기업의 사전 선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선도기업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김용욱 연구진은 “다양한 혁신과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 특례가 반영되도록 ‘개방형 규제 특례로의 전환’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계획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분야 선도기업의 사전 선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선도기업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광주·전남이 이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대상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투자 유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3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향'에서 민선 8기 광주·전남의 핵심공약과 연계 및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이 제시한 세 번째 신(新) 균형성장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성장축진지역 개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과 같은 주요 지역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김용욱 연구진은 “다양한 혁신과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 특례가 반영되도록 ‘개방형 규제 특례로의 전환’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계획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분야 선도기업의 사전 선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선도기업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백운동 동아병원 앞 U턴 불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 변경 28일부터 교통전환 실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8일부터 주월교차로부터 백운동역 주변 공사구간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전환은 동아병원 앞에서 점용 중이던 공사구간을 중앙으로 이동하고, 남구청 앞 공사구간을 맞은편인 푸른길공원으로 이동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동아병원 앞 공사구간이

중앙으로 이동하면 유(U)턴이 어렵지만 공사사에서 등을 조율해 유(U)턴 불가 구간을 최소화하고, 교통전환 초기에 모범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의숙해져 있는 차로로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등에 주의해 주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교통처리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